자연 가까이 Closer to Nature,
사람 가까이 Closer to People

www.keco.or.kr

내 월급은
아내가 관리하고

내 스케줄은
부장님이 관리하고

내 얼굴은
화장발이 관리하고

대한민국 환경은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고

제대로 관리 받고 계십니까?

한국환경공단은 기후 · 대기, 물 · 토양, 자원순환, 환경보건까지
대한민국 환경지킴이로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의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후대기 | 물 토양 | 자원순환 | 환경보건

한국환경공단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KECO2014-PE06-10

2014 vol.19 * WINTER

자연 가까이 사람 가까이

KECO vol. 19 WINTER 2014

한국환경공단

화장품의 두 얼굴

화장품은 내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 주지만,
잘못 버리면 지구를 못생기게 만든답니다.
화장품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시나요?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주로 용기에 표기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도 유통기한이 지나버리기도 하죠.
이런 화장품은 어떻게 버리면 좋을까요?
화장품 내용물을 하수구나 세면대에 버리면 절대로 안돼요.
내용물은 휴지로 닦아 쓰레기봉투에 버리고
다 쓴 용기는 분리배출을 하면 됩니다.
물론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다 쓴 후에
해당 브랜드 매장에 돌려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요즘에는 화장품 브랜드들도 공병을 반납하면 포인트를 쌓아주는 등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샘플은 넣어둬!

화장품을 사러 가면
여러 가지 샘플을 챙겨줍니다.
새끼손가락처럼 작은 병들과
조그마한 비닐팩들은
받을 때에는 공짜 선물 같아서
많이 받고 싶지만
정작 집에 가져오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때가 많지요.
꼭 써보고 싶은 제품 외에는
받지 않는 것이 좋아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CONTENTS

Special Green

04 **Intro** 생명이라는 것의 무게
06 **Special 1** 생명의 원천인 물을 지키자!
08 **Special 2** 한국환경공단의 물환경 관리사업
12 **Special 3** 한국환경공단 'Eco-divers'의 해양정화활동

Green Style

16 **출발 힐링여행** 새하얀 설원 속 펼쳐진 겨울왕국_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
20 **환경 칼럼** 친환경 패러다임 가능성 확인한 인천아시안게임
22 **에코 드라이빙** 내 사랑 새 차 길들이기
24 **녹색 에세이** 지구온난화 '우리 모두의 문제'로 다가오다
26 **어린이 환경교실** 자연 가까이 사람 가까이, 경기도어린이박물관
30 **글로벌 리포트**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생물종다양성과 보존에 대한 필요성 대두
32 **친환경 문화지대** 인천 재즈클럽 버텀라인의 오래된 미래
34 **그린&클린** 반짝반짝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일
36 **자연을 담은 식탁** 눈 내리는 밤, 우리 집 심야식당

Green Life

40 **사랑은 간식을 타고** 기꺼운 축하와 아쉬운 이별이 함께한 시간
경남권지역본부 자원순환처 폐기물부담금팀
42 **친환경 살림꾼** 과일 껍질 활용법
44 **그린 블로그** 푸루美 3기, 아차산 생태 정화 활동
46 **환상의 파트너** 우리 함께, 높이 더 높이!
50 **KECO툰** 제7차 세계물포럼 특별프로그램에 도전하세요!
52 **우리 어디가** 동물과 아이들의 아름다운 교감,
우리 아이에게 동물 친구가 생겼어요!
56 **KECO News**
58 **독자 마당**

WINTER **KECO 2014 vol.19**

발행인 이시진 **발행일** 2014년 12월 통권19호 **발행처** 한국환경공단 홍보팀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홈페이지 www.keco.or.kr ☎ 032-590-3021 **기획·제작** 하나로애드컴 ☎ 02-3443-8005

사보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앙코르 용지와 친환경 재생용지인 그린라이트 용지, 무공해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의 무게

지구상에 '살아 숨 쉬는' 존재는 인간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종류의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 인간만은
푸르고 아름다운 지구가 우리만의 것인 양
마음대로 쓰고 더럽히고 있는 걸까요?

생명의 무게를 가만히 느껴봅니다.
아스팔트 위에 조용히 돋아난 작은 풀,
자동차 매연으로 가득 찬 도시를 여행하는 작은 새,
어두워진 골목길을 떠도는 아기 고양이까지.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기에 더욱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EDITOR _ 류재근(환경학술단체연합회 회장)

생명의 원천인 물을 지키자!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약 1800만 톤의 생활하수가 발생한다고 한다. 생활하수에는 물에서 썩어 물속의 산소를 고갈시켜 수중생물의 생육을 방해해거나 심할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기물질을 비롯해 사람과 동물의 신진대사에 나쁜 영향을 주는 환경호르몬 물질까지 포함되어 있다. 매일 약 300만 톤씩 발생하는 공장폐수도 문제다. 지구상의 생명은 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모든 생물이 물을 필요로 하지만 오로지 인간들만이 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오염시키며 그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풍성하면서도 귀한 물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물이 풍성한 곳에는 생명이 풍성하다. 지구상에는 13억 8천만㎢의 물이 있다. 그 중 97%는 바닷물이고, 육지 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담수는 3%에 불과하다. 담수의 대부분은 빙설이나 지하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육지 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의 강이나 호소 등에 있는 담수는 지구 전체 수량의 0.007%에 불과하다. 이러한 소량의 담수마저 세계적으로 그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 물이 거의 없는 사막지대가 있는가 하면 빙설(氷雪)과 같은, 담수는 많지만 극한의 기후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극지방이 있다.

인간의 행위로 인해 이렇게 귀중한 물이 오염되고 있다. 오염된 물은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서 인간이 그 생존을 의지하는 동물과 식물 등 생태계를 위협, 파괴하고 있다. 과도한 생산 활동에서 공장폐수나 축산분뇨가 발생하고, 소비활동에서 생활하수가 발생한다. 이러한 폐수와 하수가 물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물 절약으로 오염을 줄이자

물 절약은 물 오염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물 절약은 생활하는 데 사용하는 물,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 농업에 사용하는 물 등의 사용량을 절약하는 것이다. 물 절약은 인간이 사용하는 물의 양을 줄임으로써 자연생태계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그만큼 늘린다는 것을 말한다. 자연생태계가 풍부해지면 인구도 늘어나고, 생활수준도 높아진다.

물 절약이 가져오는 또 하나의 큰 이점은 오염물질의 배출양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물 사용량이 줄어들면 하수나 폐수 등의 발생량이 줄어들고, 따라서 오염물질 양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처리비용도 절약되는, 2, 3중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물 절약을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목욕용수를 절약하기 위한 샤워헤드 유출구 직경 축소, 저유량 샤워헤드 사용 등으로 연간 약 7억 톤의 생활용수를 절약할 수 있고, 개량변기나 압축탱크 변기 등을 사용하면 연간 약 8억 톤의 생활용수를 절약할 수 있다. 생활용수의 절약은 물 쓰는 습관이 중요하다. 샤워할 때는 몸 적시기, 비누칠 씻어내기 등 필요한 때만 물을 틀어 놓기, 욕조목욕 대신 샤워 목욕하기, 공중화장실 대변기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 버리지 않기, 양치질이나 면도 할 때엔 컵에 물을 받아 사용하기, 샤워할 때 샴푸와 린스 대신 비누 사용하기, 자동식기세척기는 그릇이 많이 모였을 때만 사용하기 등이다.

생활하수나 공장폐수의 재활용 또한 수질 보호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쓴 물 다시 쓰기 운동"은 쓴 물을 다시 쓰면 물을 절약하는 효과와 물 오염 방지효과, 하천유지용수를 늘리는 효과 및 정수비용 절약효과 등 4중의 물 관리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은 산업체에서 유출되는 중금속과 유해물질이었으나 엄격한 법적 제재와 매서운 국민의 감시로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받게 되어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정에서 버리는 생활하수는 전체 폐수 발생량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하수구에 버리는 찌개, 국물 등과 튀김 기름은 수질을 크게 오염시킨다. 예를 들면 된장의 BOD는 26만 8,000ppm, 간장은 83,000ppm, 튀김기름은 81만 6,000ppm으로 목욕물 169ppm에 비해 수천 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방용 분쇄기를 사용하면 유기물질량이 1.8배나 증가한다. 이것은 생활하수가 수질오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

이밖에 대부분 공공처리시설 등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축산분뇨도 수질오염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과도한 육류 소비 또한 오염을 가중시키는 일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물이 하천을 오염시키지만 이 물이 다시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이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물을 수돗물로 정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수질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물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좋지 않은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상류의 작은 개천이나 마을 앞을 흐르는 시냇물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할 때 우리의 하천은, 우리의 물은 맑아질 것이다.

EDITOR_ 김새미나
자료제공_ 수질오염방제센터

한국환경공단의 물환경 관리사업

깨끗한 물이 한반도 곳곳에 흐르기 까지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영화 〈워터월드〉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식수가 없어 자신의 소변을 정화해 마시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일으켰던 장면이지만 마실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은 언제나 상상으로 끝나곤 했다. 그러나 실제로 식수난은 지구상의 여러 나라를 위협하는 강력한 환경 문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더 이상의 수질 문제 악화를 막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물환경 관리사업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자.

생명을 움직이게 하는 힘, 물

인간의 몸 약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10%가 부족하면 탈수 현상으로 목숨을 잃게 될 정도로 인간의 몸은 지속적인 수분공급을 필요로 한다. 하루에 2~3리터의 물을 마셔야 하는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물은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소중하고 중요한 지구의 자산이다. 이에 국가 및 관계 기관에서는 수질오염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관련 법규와 여러 규제들을 통해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수질정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오염사고의 발생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수생태계가 파괴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측정, 감시, 방제지원, 기술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질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한반도 어느 곳에서나 늘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날까지 한국환경공단의 발걸음은 분주하게 움직일 것이다. 공단에서는 수질오염감시에서 방제지원까지 일련의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이에 따라 수질오염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대응체계 구축은 수질오염 통합감시는 물론, 위치정보기반 방제지원시스템 구축 · 운영을 통하여 방제지원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깨끗한 물환경을 위한 한국환경공단의 노력

2009년 10월 28일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수질감시 및 오염사고 방제지원, 방제교육 · 훈련 등을 전담하는 수질오염방제센터를 설립했다.

수질오염방제센터는 물환경본부를 중심으로 한 4개 지역본부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수역의 하천 · 호소에 대한 수질측정, 하 · 폐수처리장 등 방류수 수질감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환경부와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로의 신속한 상황전파 및 방제지원이 주 업무이다. 수질오염방제센터는 각각 수질측정망팀, 생태독성관리팀, 수질관제팀, 수질오염 상황팀 및 조류개선 T/F팀의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질측정망팀은 전국 주요하천 및 호소에 69개소(2014년 10월 기준)의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을 측정 · 감시하여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수질측정망팀의 밤낮 없는 노력으로 인해 한강 등 4대강의 수계에 대한 과학적인 수질관리기반이 구축되었고, 이를 통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밖에도 오염총량관리제 등의 정책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수질관제팀에서는 수질원격감시체계(SOOSIRO) 운영을 통해 수질TMS 부착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관계기관과 사업장 등에 배출상황을 알려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성향의 분석 ·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행정기관의 환경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각 사업장의 시설 및 공정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수질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수질오염상황팀은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오염사고가 발생되면 상황을 즉각적으로 관계 부처와 사업장에 전파하는 한편, 수질오염사고 사전 예방 및 사고발생을 대비한 방제기술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태독성관리팀은 개별 화학물질에 의한 수질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생태독성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제도의 홍보, 정책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 하 · 폐수처리시설 및 1~5종의 개별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10~'14.10 193건)을 시행하여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밖에도 4개 지역(수도권, 경북권, 호남권, 충청권)본부의 환경관리처는 수질측정망 운영관리, 수질TMS 부착사업장 기술지원 및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고, 유류유출, 수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물고기 폐사 등의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인력, 장비, 물품 등을 동원한 방제지원('10~'14.10, 119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자료1. 수질오염사고 발생 사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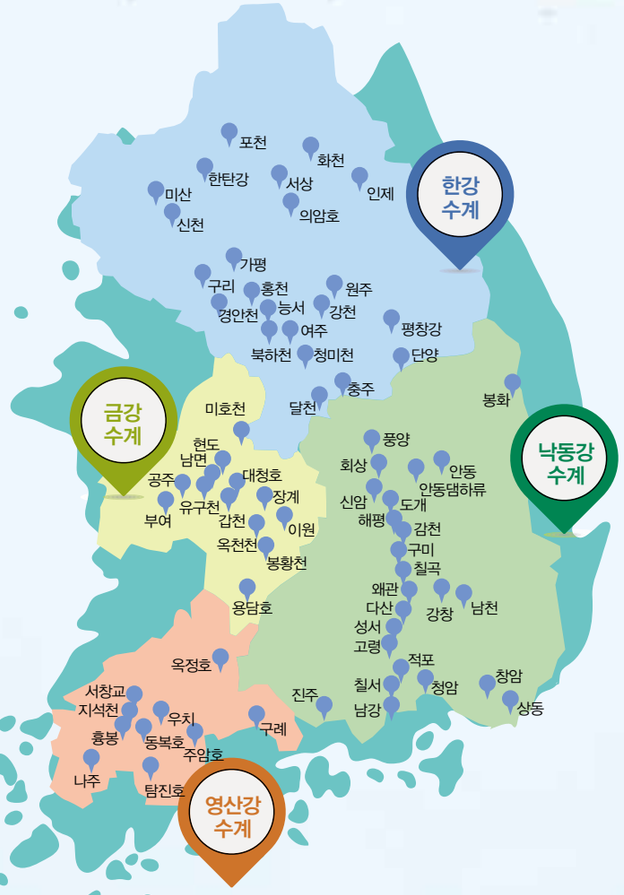


그림1. 측정소 현황

자료 1. 수질오염사고 발생 사례

사례1

일시: 2014. 4. 20
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산천
사고유형: 연류유 유출로 인한 유류오염
지원내역: 흡착붐, 흡착롤, 흡착패드를 지원해 오염 방제작업을 지원
방제지원: 호남권지역본부 수질관리팀

사례2

일시: 2014. 8. 9
장소: 충남 부여군 장암지구
사고유형: 예인선 침몰사고
지원내역: 유흡착패드, 흡착롤, 이중마대 등을 지원해 오염 방제작업을 지원
방제지원: 충청권지역본부 수질관리팀

사례3

일시: 2013. 12. 6
장소: 경기도 양평군 양수대료
사고유형: 바지선 침몰
지원내역: 흡착붐, 흡착롤, 흡착패드 등을 지원해 오염 방제작업을 지원
방제지원: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수질관리팀

EDITOR _ 김새미나
PHOTOGRAPHER _ 이일영

한국환경공단 'Eco-divers'의 해양정화활동

깨끗한 바다를 위해 삼총사가 모였다

한국환경공단의 스킨스쿠버다이빙 동호회 'Eco-divers'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 양일 간 남항진과 강릉시 소재의 해안에서 개최된 '2014 CMAS Korea 강릉 다이빙 페스티벌'에 참가해 해양정화활동을 벌였다. 취미로 시작한 활동이지만 깨끗한 바다를 위해 주말도 반납하고 새벽잠을 떨쳐가며 강릉으로 간 삼총사의 봉사활동을 따라가 본다.

좌측부터 기후변화대응처 지자체온실가스팀 김윤성 대리, 수질오염방제센터 생태독성관리팀 최정기 차장, 토양지하수처 토양환경팀 장성부

보이지 않는 바다 속까지 깨끗하게

매년 개최되는 'CMAS Korea 다이빙 페스티벌'에 전체 300여 명의 스쿠버다이버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환경공단의 사우들이 참가해 해양정화활동을 펼쳤다. 페스티벌에는 수질오염방제센터 생태독성관리팀의 최정기 차장, 기후변화대응처 지자체온실가스팀의 김윤성 대리, 토양지하수처 토양환경팀의 장성부 사원이 참가했다. 이들은 한국환경공단의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Eco-divers' 회원들로, 다이빙 자격증을 취득하여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며 동시에 해양정화활동을 펼쳐왔다.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은 교육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초급(Openwater scuba diver), 중급(Advanced scuba diver), 고급(Dive Master), 보조강사(Assistant Instructor), 강사(Instructor)로 나뉜다. 그밖에도 특수잠수 분야에는 야간, 심해, 고도, 침몰선, 구조, 동굴, 수중영상 다이버 등 무수히 많은 자격증이 있다.

최정기 차장과 김윤성 대리는 각각 초급 자격을 갖췄고, 장성부 사우는 초급부터 시작해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그밖에도 특수잠수 중 구조다이버, 장비전문가, 나이트룩스(공기통 속의 질소 함량을 줄인 기체)에 대한 강사자격증까지 갖춘 수준급 회원이다.

해양정화활동이 개최되는 곳이면 되도록 참여하려고 노력한다는 장성부 사우는 "작년에도 참가했지만 올해도 참가하게 되어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해양의 쓰레기들은 지상에 버려진 쓰레기와 달리 쉽게 수거하거나 인양하기가 어려워 정화활동에 많은 인력과 활동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CMAS Korea 다이빙 페스티벌은 다이버들의 친목을 다지는 것에도 목적이 있지만, 수중의 쓰레기들을 육상으로 건져 올려 연안의 오염을 조금이나 줄이기 위한 다이버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양정화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불가사리 비켜~

바닷물 속에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생활 쓰레기나 폐자재 등도 있지만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가사리 역시 어민들의 적이다. 실제로 인근 어민들이 가장 고맙게 여기는 것 또한 불가사리 제거 작업이기도 하다.

최정기 차장은 불가사리를 한아름 건져 올린 후 잠시 뭍으로 나왔다. "불가사리는 번식 속도가 빠르고 굴이나 조개, 홍합 등의 어패류를 잡아먹기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특히 외래종 불가사리인 별 불가사리와 아모르 불가사리가 우리나라 바다에 유입되면서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수중의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바위를 뒤덮고 있는 불가사리를 보면 최대한 많이 수거해 옵니다"라며 걱정을 표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쓰레기가 많지 않아 기분이 좋네요. 작년에는 어린이 키만큼 큰 타이어를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겨우 건져 올리기도 했거든요." 2년째 해양정화활동에 참여한 김윤성 대리가 옆에서 거든다.

업무는 물론 취미 생활까지 깨끗한 바다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한국환경공단 사우들의 열정과 몰입이 느껴진다. 앞으로도 여러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수중정화활동을 통해 후손들에게 깨끗한 바다,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고 싶다는 세 사람의 즐거운 바다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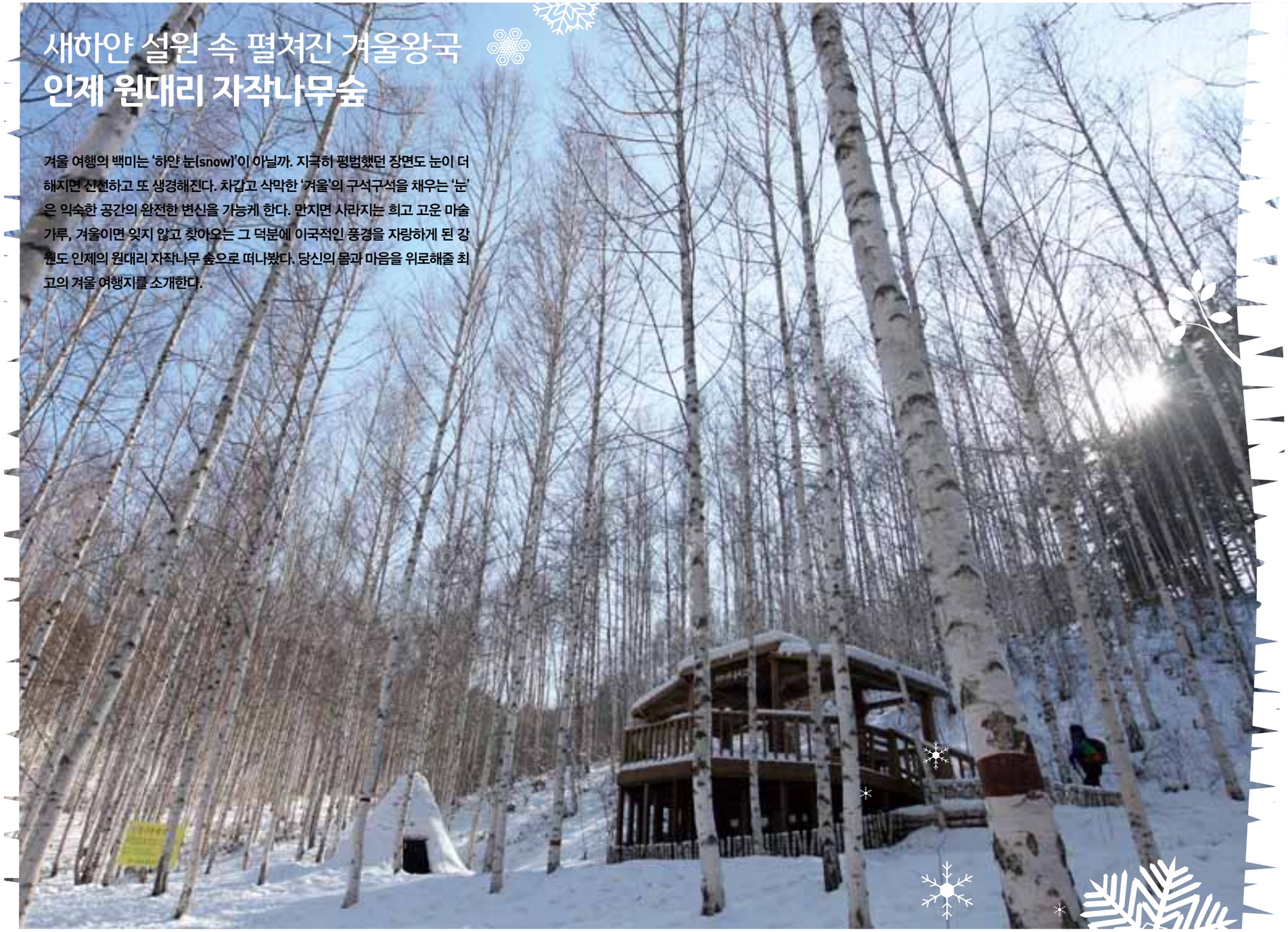
겨울戀歌

겨우내 당신을 생각하며
빨간색 털실로 짠 목도리와
따뜻한 방안에서 마시던 커피와
눈보라 치는 날에도 손 꼭 잡고 걸었던,
그 겨울이 떠올라 옷깃을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에도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걸립니다.

EDITOR_이소원
PHOTO_이소원

새하얀 설원 속 펼쳐진 겨울왕국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

겨울 여행의 백미는 '하얀 눈(snow)'이 아닐까. 지극히 평범했던 장면도 눈이 더해지면 신선하고 또 생경해진다. 차갑고 삭막한 '겨울'의 구석구석을 채우는 '눈'은 익숙한 공간의 완전한 변신을 가능케 한다. 만지면 사라지는 희고 고운 마술가루, 겨울이면 잊지 않고 찾아오는 그 덕분에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게 된 강원도 인제의 원대리 자작나무 숲으로 떠나봤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줄 최고의 겨울 여행지를 소개한다.



고백한다. 강원도 인제의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게 된 것은 〈러브 오브 시베리아〉라는 영화 덕분이다. 언젠가 보았던 하얀 눈에 덮인 광활한 시베리아 눈밭. 그 사이를 뚫고 달려가는 기차를 따라 나선 늘씬한 나무들은 강렬한 이미지로 남게 되었다. 끝말잇기라도 하듯 '겨울'하면 '눈', '눈'하면 '시베리아'가 자연스럽게 연상 됐고 그 모든 이미지의 종착점은 '흰 눈에 안긴 늘씬한 나무 숲'이 차지하곤 됐다. 언젠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게 된다면 그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아련한 자작나무의 꽃말, '당신을 기다립니다'

자작나무는 추운 곳에서 자란다. 다양한 식생이 자리하는 이 땅에도 자작나무 군락지가 있다. 굳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지 않아도 이국적인 '하얀 겨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유다. 대부분 중부 이북 산간지역에 자리하며 남한에서는 태백 · 횡성 · 인제 등 강원도 산간 지방에서 자작나무를 볼 수 있다. 그중 인제는 대표적인 자작나무 군락지로 꼽힌다. 오늘 소개할 자작나무 숲은 강원도 인제 원대리 소속이다.

인제에는 알려진 자작나무 숲이 두 곳 있다. 하나는 응봉산 자락의 수산리에, 다른 하나는 원대리에 자리한다. 수산리가 조금 더 많은 자작나무를 품은 군락지이지만 이번에는 길을 찾기 좀 더 수월한 원대리를 살펴보기로 했다. 원대리 자작나무 숲은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이 통제된다. 하얀 눈에 안긴 그림 같은 자작나무 숲을 볼 수 있는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대략 45일 정도다. 12월까지 기다려야 원대리 자작나무 숲의 겨울 풍경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잠시 자작나무를 살펴보자. 자작나무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된 결정적 이유는 그의 흰 표피 덕분인데 보기에만 좋을 뿐 아니라 불이 잘 붙어 예로부터 불쏘시개로 쓰였다. 그의 이름이 '자작나무'라고 붙은 이유도 '자작자작' 소리를 내며 탔기 때문이란다. 보기에도 좋

고 여러모로 유용한 나무였던 것. 뿐만 아니다. 박달나무처럼 단단한 가구를 만들기에도 적합하다. 불도 피울 수 있고 가구도 만들 수 있는 나무. 여러모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그의 흰 표피는 종이처럼 얇게 벗겨지기까지 해 종이 대용으로도 쓰였다. 그 예시들은 한반도 중부 이남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남 합천의 해인사에 자리한 팔만대장경의 일부도 자작나무라 알려졌으며, 천년 신라의 왕경 경주 천마총 말안장을 장식한 천마도가 그려진 곳도 자작나무 껍질이다. 아니, 여러 유용함은 차치하더라도 자작나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건 어쩌면 '당신을 기다립니다'라는 그의 꽃말이 품은 힘 덕분인지도 모른다. 추운 겨울을 꼿꼿하게 버티는 힘, 오히려 눈과 함께 있어 더욱 빛나는 그의 모습에선 '누군가를 기다리는 절절함'이 전해지기도 한다.

눈길 절로 빼앗는 자작나무의 황홀한 자태

뭘 그리 호들갑을 떨며 자작나무를 논하는가, 묻는다면 아마도 그대는 자작나무와 마주한 적이 없을 것이다. 그건 자작나무가 한번만 봐도 바로 기억할 만큼 매력적인 표피를 지녔기 때문이다. 하얀 눈(snow)과 견주어도 아쉽지 않을 하얀 표피를 자랑하며 높게는 20미터까지 자라는 자작나무는 그 외모 덕분에 '숲의 여왕'이라고도 불린다.

훤칠하고 빛나는 하얀 나무줄기를 지닌 그를 보고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엄친아'와 마주한 것 같다. '숲의 여왕'이란 말이 헛되지 않을 정도로 겉모습은 매우 훌륭하다. 군더더기 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늘씬하게 뻗은 몸매와 뽀얀 피부. 매력적인 외모 덕분에 일단은 너그러워지게 된다. 보기만 해도 좋다. 게다가 앞서 소개했듯 여러모로 유용하니 어찌 소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이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만나러 가보자. 1990년 초반부터 조림되기 시작해 이제 갓 스물을 넘긴 젊은 자작나무 숲이다. 새파란 자작나무들은 2012년 10월 즈음 '힐링' 바람을 타고 여러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힐링'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걸맞은 여행지는 흔치 않을 터.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는 '원대리 산 75-22번지'. 네비게이션에는 '원대리 산림감시초소'를 검색해 찾아가면 된다.

'원대리 산림감시초소'는 자작나무 숲 트레킹의 시작점이다. 숲에 들어서려면 일단 초소에서 방명록을 작성해야 한다. 약 3.5km의 임도가 산허리를 따라 부드럽게 이어진다. 남녀노소 무리 없이 걸을 수 있다. 하지만 눈 내린 겨울 풍경을 보러 이곳을 찾았다면 스패츠와 아이젠은 필수다. 많은 길손들의 발길로 다져진 눈길이지만 그래도 겨울 트레킹 필수품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게 겨울산행을 할 수 있는 노하우다.

어디선가 요정이 말을 것 같은 생경한 장면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을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임도에 들어서자마자 '짠' 하고 자작나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산불감시초소는 지방도 바로 옆이지만 아무래도 이 부근은 조금 소란스럽기 마련이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초입에서 멀어질수록 점차 소란스러움이 잦아든다.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부끄럽지도 않게 뽀얀 살을 대범하게 드러낸 자작나무들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땀이 송글 맺힐 무렵,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과 마주한다.

"아!"

탄성이 절로 나온다. 수천 그루의 자작나무들이 하얀 눈 사이를 빼곡히 채우고 있다. 숲으로 들어서면 금방이라도 요정이 여기저기서 툭 튀어나올 것만 같다.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에 들어서니 어째서 자작나무를 '나무의 여왕'이라 하는지, 자작나무 숲을 '숲의 백미'라 부르는지 절로 이해된다. 처음에는 이국적이고 생경한 풍경에 눈길을 돌릴 수 없고 숲에 직접 들어서면 어디를 찍어도 그림이 되는 '촬영 포인트'들 덕분에 정신이 없다.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은 자작나무 코스(0.9km), 치유코스(1.5km), 탐험코스(1.1km) 이렇게 세 개의 산책코스를 품고 있다. 별 다른 구분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코스에 구애받지 않고 자작나무 숲을 거닐면 좋겠다. 이미지로만 접하던 풍경과 직접 마주하는 기분은 제법 얼얼하다. 마냥 좋기도 하고 여기가 어딘지 볼을 꼬집게도 된다. 직접 자작나무의 고운 표피를 만지면 얼어붙은 볼을 꼬집는 것보다도 생생하게 이 공간의 아름다움이 가까이 펼쳐진다.

생경하지만 황홀한 겨울의 자작나무 숲은 그 자체로 휴식과 치유를 준다. 눈앞에 펼쳐진 이미지 덕분에 머릿속을 가득 채운 골치 아픈 생각들은 잠시 잊힌다. 말로만 듣던 '자연이 주는 힐링'이란 이런 것일까. 한참을 자작나무 숲에 머물다 돌아가는 길, 아쉬움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된다. 왕복 7km 정도인 산림초소에서 자작나무 숲까지는 2시간이면 넉넉하다. 올 한해 열심히 달려온 스스로를 위한 작은 선물, 아무 말도 필요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원대리 자작나무 숲 겨울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자작나무의 꽃말 '당신을 기다립니다'를 마음 깊이 담고서.

문의: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36

Tip

1. 찾아가는 법

*** 자가운전**

서울춘천고속도로 → 동홍천IC → 44번 국도(속초·인제·신남 방면) →원대산림감시초소

네비게이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산 75-22

2. 주변 음식점

진동산채촌 : 산채요리 / 인제군 기린면 / 033-463-8484

일미장 : 한우 / 인제군 인제읍 / 033-461-2396

감자네식당 : 민물매운탕 / 인제군 인제읍 / 033-462-5766

3. 숙박

하늘내린호텔 :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96-3 / 033-463-5700

방태산 황토펜션 : 인제군 기린면 방태산길 / 033-463-5488

EDITOR _ 김영준(스포츠동아 기자)

친환경 패러다임 가능성 확인한 인천아시안게임

스포츠와 환경이 제로섬 게임에서 상생의 관계로 변화하는 시대다. 스포츠는 인프라를 위해 환경을 개발하고, 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이 부득이한 일인 줄 알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환경이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세상'이 도래하자 스포츠에서도 친환경이 '뉴 트렌드'로 자리하기에 이르렀다. 9월 개최된 인천아시안게임은 한국에서도 친환경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을 증명한 계기로 기억될 만하다.

쓰레기매립지를 경기장으로

환경을 훼손한다는 우려를 듣던 스포츠 인프라 시설을 쓰레기매립지나 연탄재 야적장에 지은 것은 경제적 효율성과 친환경이라는 명분을 동시에 잡은 선택이라는 호평을 들었다.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에 건설한 드림파크 경기장이 대표적이다. 2,075만㎡에 달하는 이 매립지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는 곳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인천시는 이 지역의 공간을 활용해 드림파크 경기장을 지었고,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했다. 이곳에서 아시안게임 골프경기가 열렸다. 골프장 주변 과거 연탄재 야적장 터에는 수구, 승마, 근대 5종을 치를 수 있는 시설을 건립했다. 이 지역 일대에 국화나 코스모스 같은 꽃들을 많이 심고, 청결 관리에 세심함을 더하며 가장 우려했던 악취 걱정도 사라졌다. 아시안게임 이후 스포츠 인프라의 경제적 활용을 위해 드림파크 경기장은 레저시설로 개방된다. 향후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해 수도권 체육 인구를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통해 천덕꾸러기가 될 뻔했던 토지를 재활용했고, 환경까지 살린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아시안게임 최초로 ISO 친환경 국제인증

인천아시안게임은 국제표준화기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친환경 국제인증을 취득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했다. ISP 국제인증은 ISO가 세계 공통으로 제정한 시스템 규격 중 하나로 스포츠경기, 콘서트, 축제 등 대형 이벤트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사회,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친환경 인증 규격이다. 인천아시안게임이 이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대회 기간 마련한 저탄소, 친환경 정책이 국제적으로 공인 받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실제 인천아시안게임은 대회 3대 목표 중 하나로 '저탄소 · 친환경'을 꼽을 정도로 환경에 애착을 보였다. 그 핵심적 지표라 할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배출권거래, 임시시설물 재활용, 차량 2부제 도입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대회 기간 총 탄소배출량을 약 13만 톤으로 설정하고, 그에 맞춘 대회 운영을 한 것이다. 탄소배출량을 낮추기 위해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 6,300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상쇄 숲'을 조성했다.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은 경기장 지붕에 태양광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 그 자원으로 실내조명을 사용했다. 또 지열을 이용해 냉난방 시설을 공급했고, 나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은 빗물을 받아서 이용했다. 또 대회 기간 '그린카드 소지자 입장료 할인제'를 도입해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했다.

친환경 '코드그린'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유효

인천아시안게임을 통해 친환경 국제대회 개최의 경험을 쌓았기에 2018년에 강원도 평창에서 열릴 동계올림픽을 향한 기대와 자신감도 한결 커지게 됐다. 동계올림픽이 천혜의 환경을 가진 강원도에서 열려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특히 동계올림픽의 속성 상, 스키와 같은 실외 종목을 치르려면 올림픽 규격에 맞추기 위해 자연에 손을 댈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일대에 건설 예정인 스키 알파인(활강), 슈퍼대회전 경기장 건설을 위해 인근 가리왕산의 나무들을 벌목하는 작업에 들어가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단체 등을 포함한 민관합동 '생태복원단'을 구성해 친환경 올림픽을 위한 머리를 맞댄다는 방침이다.

인천아시안게임이 좋은 사례가 되어 한국에서 열리는 30년만의 올림픽, 최초로 열리는 동계올림픽대회가 세계의 모범사례로 남는 친환경의 축제로 치러지길 기대해본다.

EDITOR_성열휘(조선닷컴 카조선 기자)

처음의 습관이 차량 수명을 결정한다

내 사랑 새 차 길들이기

새 차를 구입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설레는 일이다. 구입한 후에는 애정 또한 각별해져 어떻게 길들여야 할지 여기저기 알아보게 된다. 새 차를 잘 길들이면 연비는 물론이며 차량의 수명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2만 개 이상의 부품들이 조립돼 탄생한 새 차를 인도받아 부품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성능 관리를 꼼꼼히 챙긴다. 차의 심장과도 같은 엔진 관리는 물론, 처음 운전하는 순간부터 5,000km를 주행할 때까지 '단계별 새 차 길들이기'에 대해 알아보자.

새 차부터 엔진 코팅해 엔진마모 예방하기

차의 심장인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엔진 코팅은 엔진에 마모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엔진오일은 엔진이 멈춰있는 동안 중력에 의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이렇게 엔진오일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엔진오일이 엔진 내부에 순환되기 전에 피스톤이 실린더 내에서 왕복운동을 하게 되고, 이때 피스톤과 실린더 내벽 사이 마찰에 의해 엔진 마모가 발생한다. 엔진 마모의 70~80%가 이와 같은 초기시동 시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엔진을 보호할 수 있는 엔진코팅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엔진코팅제는 엔진오일과 함께 사용하면 된다.

1,000~3,000km 도달 시 엔진오일 교환

초기에 길들여진 엔진은 차 유지비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출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연비가 저하되고 이는 유지비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새로 만들어진 엔진에는 미처 제거되지 않은 금속 분말과 이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1,000~3,000km 주행 후 엔진오일을 갈아주는 것이 좋다. 초기부터 윤활 성능이 뛰어난 합성 엔진오일을 사용하면 엔진 마모를 줄이고 출력을 높여 연비 저하에 따른 유지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2,000km까지는 고속주행에 욕심내지 않기

새 차는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따라 길들여지며 연비가 결정된다. 간혹 새 차를 사면 고속주행으로 연비를 높이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엔진의 재질과 성능이 낙후돼 있던 시절의 얘기다. 새 차는 처음 시동을 걸면 실린더와 피스톤 그리고 각종 기계 작동부의 맞물리는 부분들이 탄력을 받으면서 길들여지기 시작한다. 이때 서로 어긋나는 소리를 내며 자리 다듬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드러운 주행이 필요한 순간이며 출고 뒤 주행거리 1,000km까지는 과속이나 급가속, 급제동을 삼가야 한다. 또한, 엔진 회전수도 4,000rpm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전해야 한다.

2,000km까지는 급제동하지 않기

초반 2,000km 이내에 급제동을 하면 서스펜션(현가장치)이나 하체 부품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해 고장이나 소음의 원인이 된다. 특히 새 차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윈드실드와 보닛 사이의 거리가 낯설어 실제동거리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제동의 위험성이 크다.

또한, 새 차의 초반 주행은 새 차 길들이기와 함께 운전자의 운전습관 형성시기이기 때문에 급제동 등 위험성이 높은 운전 습관을 고치는 기회로 삼는 것을 추천한다.

3,000km까지는 3,000rpm을 넘지 않도록 하기

차가 달리기 위해선 심장인 엔진뿐만 아니라 엔진의 움직임을 실제로 바퀴로 전달하는 미션의 역할도 중요하다. 3,000km까지는 미션이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로 3,000rpm 이상의 높은 회전수로 운전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는 높은 rpm으로 미션에 무리하게 부담을 주면 미션의 부품들이 불균형적으로 닳는 편마모가 발생해 소음이 증가하고 출력이 저하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엔진 속 때 관리하기

엔진 속 연료가 폭발하면서 생기는 카본 찌꺼기는 차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형성된다. 이 카본 찌꺼기를 '카본 때' 또는 '엔진 때'라고 한다. 엔진을 관리하지 않아 엔진 때가 쌓이게 되면 엔진의 연비와 출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소음이 증가하게 된다. 엔진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돼 점점 단단하게 굳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새 엔진부터 연료시스템크리너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쉽게 엔진 때를 제거해 새 차 느낌 그대로의 엔진으로 이용할 수 있다.

EDITOR_ 정지우(파이낸셜뉴스 기자)

지구온난화 '우리 모두의 문제'로 다가오다

지구가 신음하고 있다. 인도와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은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고 남미는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살인적인 폭염과 홍수로 수많은 재해를 입었고 아프리카는 그나마 있던 마실 물조차 구할 수 없다. 지구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신음소리를 모른 척하고 무시한다면 그 피해 역시 인류가 고스란히 되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산업 발달이 불러온 지구온난화

극지방 빙하는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녹으면서 해수면을 상승시킨다. 이미 지난 100년 동안 해수면은 23㎝가량 상승했다. 이대로라면 섬이나 해안 도시는 사라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생태계 이상 징후를 피할 수 없다. 여름엔 폭우, 겨울엔 폭설의 피해를 보는 해가 반복된다. 겨울이 사라지고 사막이 생길 가능성도 농후하다. 올여름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상어가 출몰하기도 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이른바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문명의 시작부터 필요했던 에너지를 산업 발달과정에서 더욱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주범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만큼 해결방법도 명확하다. 폐기물재활용, 친환경적 원료 사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이미 세계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발전소의 두 얼굴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이 우리나라에 국빈 방문한 올해 7월 환경부와 중국 환경보호부는 '한 · 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미세먼지, 화력발전소 등 대기오염 주범에 대해 공동 대응하자는 게 각서의 골자다. 양국이 양해각서에 화력발전소 문제를 거론한 것은 석탄 등 유연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막자는 취지다. 실제 양국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발전소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화력발전소에만 그치지 않는다.

조력발전소는 조류나 조수 간만 등의 차이를 이용, 수차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다. 언뜻 친환경적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조력발전은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지만 어장, 생태계 변화 등 직 · 간접적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충남 태안 가로림만(灣) 조력발전이다.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이지만 전기 생산량은 충남 서산시 전체 사용량의 40%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에 비해 갯벌 손실, 수질오염, 홍수통제 기능 상실 등 환경파괴 우려는 훨씬 크다며 주민과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결국 환경부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가 미흡하다며 반려했다. 사실상 백지화다.

바람의 힘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풍력발전소도 친환경 발전으로 꼽힌다. 그러나 풍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선 그 장소의 자연훼손과 지형변화가 불가피하다. 풍력발전의 규모를 감안하면 설치 지역의 생태계 파괴도 우려된다.

원자력 발전소는 위협 그 자체다. 세계는 이미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 사고 때 그 공포를 충분히 경험했다. 태양관은 전력 공급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 노력

세계는 그동안 전력을 생산하면서도 환경오염이나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을 찾아왔다. 2011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감축 체제를 위한 협상(더반 플랫폼 출범)을 시작하고 선진국 2차 온실가스 의무 감축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교토의정서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폐자원에너지 센터 설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세웠다.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 · 운영하는 곳이다.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 제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미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 폐자원에너지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탈리아는 유럽 폐자원에너지 관리의 사무국 역할까지 하고 있다. 아시아에선 우리나라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폐자원에너지센터 본격 운영은 연간 6990억 원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새로운 환경 먹거리다.

종합하면 이제는 화력 · 수력 · 풍력 등 무엇을 희생해서 에너지를 얻는 시대는 지났다. 그 희생은 '에너지'라는 창조물 외에 또 다른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다. 부지불식간이지만 이미 지구의 곳곳에서 그 재앙은 자리를 잡고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쓰고 버린 것들'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폐기물을 쓰레기로 보지 않고 자원으로 보는 생각의 전환이다. 이제 남은 숙제는 이러한 변화를 국민들에게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은 정부나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환경 문제'라는 말이 더욱 친근해져야 한다.

EDITOR_김새미나
PHOTO_경기도어린이박물관

"자연 가까이 사람 가까이"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갈만한 전시나 도서관을 찾다보면 늘 같은 고민에 부딪힌다. '아이들이 지루해하면 어떡하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이런 엄마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는 것 외에도 창의력을 키워준다. 또, 자연과 함께 공생하는 방법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한 교육효과까지 알뜰하게 챙길 수 있어 박물관에서 일석이조를 누릴 수 있는 똑똑한 체험학습의 현장이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2011년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약 200만 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체험전시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평범하다면 평범한 이름을 가진 이 박물관에는 여느 박물관과는 사뭇 다른 점이 있다. 어린이들이 전시물과 전시공간을 통해 체험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이들로 구성된 어린이자문단이 조직되어 있어 박물관의 전시와 프로그램,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아이들은 눈높이에 맞춰진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하고 학습하며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게 된다.

그중에서도 '자연 놀이터', '튼튼 놀이터', '한강과 물', '우리 몸은 어떻게' 등과 같은 주제의 상설전시실에는 전시물을 만지고 직접 작동해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자연과 인체를 느끼는 이곳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없이도 하루를 즐긴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는 만 하루를 잡고 천천히 둘러볼 정도로 알차고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번 지면을 빌어 아이들이 자연을 느끼고 사람과 동물, 식물의 관계와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공간을 골라 소개해 본다.

1st FLOOR

○ **자연놀이터** 미국 보스턴 어린이박물관의 사전 자문을 통해 구성했으며, 영유아의 움직임과 감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5가지 전시물이 있다. 이곳에서는 자연이라는 테마 속에서 어린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과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연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땅 속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텃밭에서 채소도 가꿔보고, 색잠자리를 날려보고 망으로 잡아보거나 다람쥐가 되어 통나무를 오르내린다. 이렇게 아이들은 자연에서 사람과 동물, 식물들이 함께 성장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또한 자연놀이터에서 튼튼놀이터로 가는 길에는 다양한 자동차들이 줄을 지어 있다. 방화복을 입고 소방차도 타 보고, 버스나 택시, 경찰차를 타보며 재미있는 놀이와 체험이 가능하다.

○ **튼튼놀이터** 튼튼놀이터에서는 운동과학의 원리를 알아보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게 해주는 놀이터다. 자전거를 돌려 꽃바람개비를 움직이거나 펌프질을 통해 로켓공을 쏘아 올리며 튼튼한 어린이가 되기 위한 생활습관을 익히는 배움의 장이다. 이곳에서 배우는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 운동능력과 자신감은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창의력을 키워주는 이색 전시로 아이들이 클라이밍을 할 수 있는 〈21세기 잭과 콩나무〉 전시물이 운영되고 있어 흥미와 재미까지 유발한다.

2nd FLOOR

○ **한강과 물** 처음으로 문명이 만들어진 곳들의 공통점은 강이 있다는 것이다. 한강과 물 전시공간에서는 한강 주변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한강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리고 물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다. 배와 물레방아, 조각배와 낚시 놀이, 요트 항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물과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다.

○ **우리 몸은 어떻게?** 심장, 눈, 귀, 코 등 신체 각 기관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산소를 들이마시고, 깨끗한 피를 신체 모든 곳으로 보내주는 일, 음식물이 소화 기관을 지나는 과정, 몸을 빨리 움직일 때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등을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 직접 느껴볼 수 있다.

3rd FLOOR

○ **에코 아틀리에** 이곳에서는 쓰다 남은 벽지, 폐고무, 전기줄, 철지난 잡지 또는 빈캔들이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닌 독특하고 예쁜 예술작품이 된다.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해 재활용품을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공간. 의외로 아이들의 호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쓸모없는 쓰레기와 용품들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예술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배우고 미적 감각까지 키울 수 있는 좋은 학습공간이 된다. 체험은 1일 7회이며 사전에 예약할 수 있다.

Tip

그밖에도 건축작업장, 동화속보물찾기, 내친구를 소개합니다. 미니씨어터, 박물관 속 미술관과 순회전 등이 있으며 매달 바뀌는 여러 기획전이 있어 다양한 전시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또, 기획전 〈열 두 상자와 떠나는 화폐여행〉과 연계한 '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체험하고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는 '내가 번 돈 이야기' 교육이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운영시간 10:00~18:00(토요일은 19:00까지 운영), 매월 2, 4주 월 쉼(공휴일 제외)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문의 031-270-8600 **홈페이지** gcm.ggcf.kr

EDITOR _ 전준범(조선비즈 기자)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생물종다양성과 보존에 대한 필요성 대두

흔히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가 자원부국까지 겸하는 경우는 드물다. 마찬가지로 자원부국으로 잘 알려진 국가 중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도 적다. 물론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나라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10월 12일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의 향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만든다.

'나고야의정서'는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들여와 각종 제품 개발에 이용하려는 국가가 사전에 자원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일정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거 인류 공동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생물자원에 대해 앞으로는 소유국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로 자원 제공국의 입장에 속해온 개발도상국들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기존 선진국들은 로열티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10월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의 나고야의정서 발효가 전 세계 제약, 화장품, 건강식품, 바이오농업 등의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의정서 채택

지금의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논의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채택된 1992년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후 이익 공유에 관한 구체적 이행방법을 정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다가 구속력을 지닌 공동규범은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CBD 당사국 총회 때 채택됐다.

당시 CBD 당사국들은 전문과 36개의 조문,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종류 예시를 명시한 부속서로 의정서를 구성했다. 생물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통보승인(PIC)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당사국들은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또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로열티 지불이나 기술이전, 공동연구 등의 이익 공유를 실시하도록 했다.

의정서 적용시점은 의정서 발효일 이후부터로 잡았다. 발효를 위해서는 50개 국가가 비준을 하고 90일이 지나야 하는데 올해 7월 우루과이가 50번째 비준국가가 되면서 90일 후인 지난 10월 12일이 발효일로 확정된 것이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54개국이 비준을 마쳤으며, 그 숫자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생물자원의 해외의존도 높은 국내 기업들

전문가들은 나고야의정서 발효가 국내 산업계에 당장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고 있다. 국내 기업의 48.8%가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생물자원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 모두 아직은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아직까지는 비준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비준국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한국과 미국, 중국 등도 언젠가는 비준을 할 예정인 만큼 대책을 미리 강구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조언이기도 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업계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매년 136~639억 원의 경제적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산업계 전체로 보면 이익 공유를 위해 매년 최대 5000억 원을 다른 나라에 더 지불해야 한다. 화장품 업계만 해도 이미 원료의 80%를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해서 쓰고 있다.

지난 9월 15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나고야 의정서 대응 산업계 세미나'에 참석한 오좌섭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천연물신약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전체 생물자원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서 발효에 따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각 기업들의 현실인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의 발굴과 대응이 필요

문제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난해 말 국내 기업 701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1.5%가 생물자원이나 그 파생물을 제품개발에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활용 분야는 의약품 34.1%, 화장품 18.2%, 건강기능식품 13.6% 등의 순이었다. 생물자원을 가장 많이 이용한 의약품 업계의 경우 현재 총 7개 제약사에서 8개의 천연물의약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동아ST의 스티렌정과 모티리톤, 녹십자의 신바로, SK케미칼의 조인스, 안국약품의 시네츄라,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 영진약품의 유토마외 등이다. 이들 약품은 황련, 견우자, 현호색, 당귀, 방풍, 오가피 등의 성분을 함유하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조달한 것이다. 로열티 지급 요구에 대비한 대체물질 마련, 협상 등의 시도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국산 생물자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정부 차원에서 고유종 발굴 노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한반도에는 10만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이중에서 4만1000여 종을 찾아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김상배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발굴 저조 분야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고유종 조사를 하고 종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DITOR_김새미나
PHOTOGRAPHER_이동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뒤로 하고, 차이나타운을 끼고 있는 골목길 어귀에 인천 유일의 재즈클럽, 버텀라인이 있다. 이곳 골목에 들어서면 마치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작은 문이 있다. 문을 따라 계단을 오르면 30년이 넘도록 한 자리에 버티고 선 재즈클럽을 만날 수 있다.

인천 재즈클럽 버텀라인의 오래된 미래

100년 전 양품점이 재즈클럽으로

1910년의 인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유했던 가슴 아픈 역사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 사건이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인천 중구는 개항기의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온 입구이자 통로였다. 인천 중구 중앙동에 개항기 때의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천을 찾았다.

네온사인과 체인점 사이로 여전히 옛 향수를 머금은 건물들이 드문드문 자리한 곳에 재즈클럽 버텀라인이 있다. 취재진이 버텀라인을 찾은 날은 음유시인 '노갈'의 콘서트가 있었다. 공연 리허설로 한창인 가운데 버텀라인의 허정선 대표가 흑백사진을 꺼냈다. "고전(후루다)양행이라는 유명상점이었어요. 모자나 넥타이, 양산 같은 걸 팔았죠." 버텀라인의 옛 모습이라고 했다. 자세히 들여다봤다. 사진 속에서 100년도 더 전의 양품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면이 유리창으로 된 1층과 2층을 모두 양품점으로 사용했던 모양으로, 과연 조선말 모던보이와 모던걸들이 찾을 만한 멋스러운 외관을 갖고 있었다. 북적이던 개항기와 고전양행의 모습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려보던 눈길이 천장에 머문다. 높이 뚫려 있는 천장 사이로 나무 기둥이 가로지른다. 이것이 바로 건축전공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왕대공 트러스 구조다. 모 대학 건축학과 교수가 반드시 이곳에 가서 왕대공 트러스 구조를 눈으로 보고 오라고 했다며, 건축학과 학생들도 많이 찾는다고 했다.

1. 오랜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버텀라인의 벽과 기둥. **2.** 건축가들이 직접 보러온다는 왕대공 트러스 구조의 천장. **3.** 구석구석 허 대표의 손길이 머문 흔적이 남아있다.

시간을 보관하는 음악, 음악을 담은 공간

개항기 양품점으로 이름을 떨치던 이 건물은 그가 지내온 세월만큼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이리저리 휩쓸렸다. 식당이 되기도 했고, 허물어질 뻔한 위기도 넘겼다. 이제는 역사의 증인이자 유물로 골목을 지키고 선 이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음악이다. 그 점이 바로 손님들이 버텀라인 최고의 매력으로 꼽는 점이기도 하다.

"20년 전이던가. 내부 수리를 하려고 벽을 조금 헐어냈는데 진흙으로 빚은 벽 안에 볏짚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일반 콘크리트 벽은 소리를 튕겨내거든요. 진흙으로 빚은 벽은 소리를 품어주고 또 소리의 울림을 좋게 만들어요."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오랜 기억을 가진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다.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찾아도 늘 같은 곳에 있는 추억의 장소가 되고 싶어요. 그뿐이에요. 음악이 좋고, 지나간 시간이 좋고."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하듯 버텀라인을 품은 이 건물도 그 세월의 무게에 맞게 많은 손질과 관심이 필요했다. 주변의 다른 건물들이 상업논리에 의해 헐리고 무너져 다시 세워져도 허 대표는 이곳만은 지키고 싶다고 했다.

버텀라인에서는 매주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는 기타와 피아노, 베이스와 드럼으로 구성된 '플랫5'의 정기공연이, 첫째 셋째 주 금요일에는 상설공연이 있다.

4. 많은 이들의 추억이 깃든 이곳을 오래도록 지키고 싶다는 허정선 대표.

EDITOR _ 김새미나
PHOTOGRAPHER _ 손정철

반짝반짝 햇빛으로 할 수 있는 일
태양광 파워 시스템

전기 없는 세상은 얼마나 깜깜하고 답답할까? 누구나 종종 어둠 속에 놓이거나, 허허벌판에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없어 전전긍긍했던 기억 하나쯤은 갖고 있을 것이다. 전기는 아끼고 환경도 생각하는 스마트컨슈머라면 태양광 파워 시스템을 눈여겨 봐야 한다. 여기 태양광으로 충전이 가능한 몇 가지 제품을 소개한다.

태양광으로 자전하는 지구본
by 디자인에버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건전지는 경제적으로도 문제이지만 쓰레기가 되어 지구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아는지? 이 지구본은 태양광을 받으면 에너지로 변해서 건전지를 넣지 않고도 작동한다. 심지어 형광등 불빛으로도 작동이 된다. 지구본을 태양광 전지 받침대에 꼽기만 하면 진짜 자전하듯 회전한다.

태양광충전 LED스탠드
globoy by 모아꼬레

귀여운 표정과 감각적인 디자인의 스탠드. 태양광으로 충전하면 사용이 가능한 600ml 리튬이온건전지가 내장되어 있다. 웃고 있는 쪽으로 세워 두면 스탠드가 켜지고, 반대로 하부에 있는 태양광집열판이 있는 면으로 세워두면 저절로 꺼지면서 충전이 된다.

키홀더형 미니손전등
by 에코리즈

이 작은 키홀더가 깜찍하게도 손전등 역할을 한다. 열쇠나 가방에 걸어두면 이동 중에 중앙에 있는 태양광 집전판으로 햇볕을 받거나 실내에서도 형광등 아래서 에너지를 흡수해, 어두운 곳에서 물건을 찾을 때 유용한 손전등이 된다. 게다가 착하게도 LED 전구를 장착했다. 선명하고 밝은 불빛에 귀여운 디자인, 스위치까지. 조그마한 몸에 다 갖췄다.

다용도 태양광 충전기 2.0
by 헬셀코리아

손 안에 쏙들어오는 사이즈의 충전기. 실리콘케이스와 키링이 함께 구성되어 가방에 매단 채 이동 중 태양광 충전이 가능해 야외에서 유용하다. 본체 전면의 태양열판으로 충전이 가능하며, 별도의 usb케이블을 연결해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의 각종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다.

EDITOR _ 김새미나
PHOTO _ 「요리의 여신」 다독다독

눈 내리는 밤, 우리집 심야식당

일본드라마 〈심야식당〉을 보면 깊은 겨울밤 한 남자가 바 테이블에 앉아 조개술찜을 시키는 장면이 있다. 추운 겨울밤, 창밖을 수놓는 하얀 눈발을 바라보면 뜨끈한 국물 생각이 간절해진다. 이런 밤 가족끼리 둘러 앉아 뜨겁고 시원한 국물을 마시며 조갯살을 발라내 먹는 재미는 서양의 조개요리인 봉골레에 비할 바 아니다. 간편하게 만드는 야식으로도, 부부가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안주로도 안성맞춤인 조개술찜을 만들어 보자.

껍질째 삶은 국물, 시원하고 깊은 맛

조개 중에서도 가장 시원한 맛을 가진 바지락은 주로 국이나 칼국수를 끓이는 데 많이 사용된다. 말갛게 끓인 국물은 간의 독을 푸는 해장에도 그만이라 숙취해소에도 많이 쓰인다. 이것은 바로 바지락에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는 타우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 게다가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간이 약해 쉬이 피로하고 황달기가 있는 사람, 술을 마신 뒷날의 숙취에 반드시 바지락 국을 끓여 먹였다고 하니 그 효과를 능히 짐작할 만 하다. 또 바지락은 성장기 어린이들의 발육에 좋은 아연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철을 함유하고 있어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성분의 하나로 빈혈을 해방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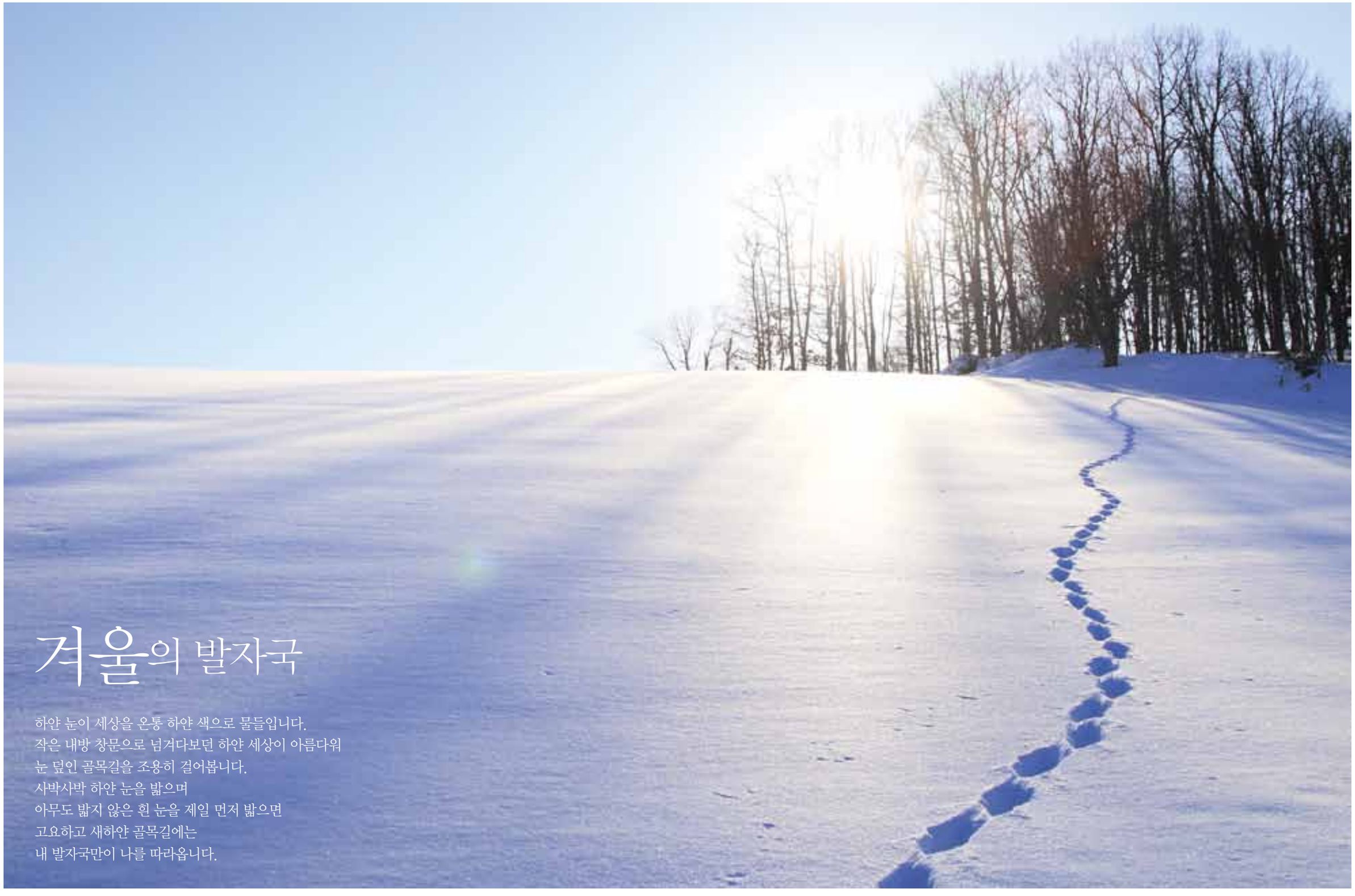
바지락은 껍질째 쪄서 먹고 국물을 떠먹으면 시원하고 깊은 감칠맛이 난다. 바지락으로 만든 조개술찜은 숟가락으로 떠먹기 보다는 껍질째 속을 꺼내 알맹이를 먹고 국물도 껍질로 떠서 먹으면 더욱 맛이 좋다.

뜨끈하고 시원한 바지락 조개술찜

재료: 바지락 500g, 마늘 3~4쪽, 청양고추 1개, 홍고추 1개, 올리브유 약간, 버터 1작은술, 청주 100ml, 간장 1/4 작은술, 실파 약간, 후춧가루 약간

1. 조개는 소금물에 담가 해감을 뺀 후, 깨끗이 씻는다. **2.** 마늘은 편 썰고, 홍고추와 청양고추는 어슷 썬다. 실파는 송송 썰어 준비한다. **3.**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을 볶는다. **4.** 조개를 넣고 센 불에서 재빨리 볶아준다. **5.** 준비된 분량의 청주를 넣어 비린 맛을 잡는다. **6.** 바글바글 끓으면 중간불로 바꾼 후,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넣고, 간장으로 간을 한다. **7.** 조개가 입을 벌리면 버터 1큰술을 넣는다. **8.** 마지막으로 후춧가루를 살짝 뿌리고 다진 실파를 넣는다.

tip : 조개나 홍합은 조리하기 전에 바닷물과 비슷한 염도의 소금물에 담가 꼭 해감을 해야 한다. 물 5컵에 굵은 소금 2~3큰술을 넣어 1~2시간 담가두면 된다.



겨울의 발자국

하얀 눈이 세상을 온통 하얀 색으로 물들입니다.
작은 내방 창문으로 넘겨다보던 하얀 세상이 아름다워
눈 덮인 골목길을 조용히 걸어봅니다.
사박사박 하얀 눈을 밟으며
아무도 밟지 않은 흰 눈을 제일 먼저 밟으면
고요하고 새하얀 골목길에는
내 발자국만이 나를 따라옵니다.

EDITOR _ 성소영
PHOTOGRAPHER _ 이일영

기꺼운 축하와 아쉬운 이별이 함께한 시간

모든 사연에는 전부 의미가 있지만, 편집부 앞으로 날아온 경남권지역본부 자원순환처 폐기물부담금팀의 사연은 조금 더 특별했다. 후배 직원들을 바르게 이끌고 있는 팀 내 두 형님의 입사 28주년과 23주년을 맞이한 것과 동시에, 동료 중 한 명이 다른 팀으로 발령을 받아 이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했던 폐기물부담금팀의 서프라이즈 파티 현장으로 떠나 보자.

이 날의 파티는 떠나는 사람에게도 보내는 사람에게도 오랫동안 기억될 추억이 될 것이다.

팀원들을 위한 서프라이즈 파티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경남권지역본부 자원순환처 폐기물부담금팀 앞으로 피자와 도넛이 한아름 배달됐다. 맛있는 간식을 앞에 두고 팀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같은 팀 이민선 차장과 김민규 대리가 의기투합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에 모두 놀란 모습이다.

"오랫동안 기억되는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간식이 도착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팀원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웃음). 표정들을 보니 오늘 이벤트는 성공이네요!" 사연을 신청한 김민규 대리의 말이 끝나자 팀원들은 "어제 퇴근하기 전, 이민선 차장님이 단체사진이나 한 장 찍자며 신경 쓰고 오라고 하셨는데 이제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어요"라며 웃었다.

오늘의 파티는 축하와 송별의 의미가 공존하는 자리였다. 팀의 '정신적 지주'를 맡고 있는 윤강현 팀장과 김명환 대리가 올해 11월에 각각 입사 28주년, 23주년을 맞았고, 입사 5년차를 맞은 박범준 대리가 본사 환경분석처로 인사발령을 받아 팀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 기쁘고도 슬픈 이 자리에서, 분위기메이커인 박범준 대리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촬영에 임해 파티를 즐겁게 이끌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김민규 대리는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박범준 대리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쾌, 상쾌, 통쾌남(男)'이죠. 언제나 밝고 즐거운 반면, 업무에 있어서는 꼼꼼하고 철저해서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어요. 팀의 분위기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었는데 본사로 떠난다니 많이 아쉽네요. 하지만 여전히 공단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니까 종종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해피바이러스가 넘치는 폐기물부담금팀

촬영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폐기물부담금팀은 경남권지역본부에서 가장 즐겁고 유쾌한 팀으로 유명하다. 인턴사원 두 명을 포함해 8명이 하나로 뭉친 팀으로, 서로를 가족처럼 위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팀원들은 "하루 중 절반을 보내는 회사 생활에서,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이토록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인 팀의 큰 형님, 윤강현 팀장과 김명환 대리의 역할이 컸다. 후배 직원들의 가벼운 장난쯤은 허허 웃으며 기쁘게 받아주는 윤강현 팀장은 물론이고, 김명환 대리는 직원들을 집에 종종 초대해 저녁을 대접할 정도로 회사 식구들을 살뜰히 챙긴다고. 각각 1986년 12월, 1991년 11월에 한국환경공단에 들어와 올해로 입사 28주년, 23주년이 된 이들은 일과 인생 모두에서 후배 직원들의 훌륭한 나침반이 돼주고 있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와 김명환 대리의 축하 자리를 마련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 오랜 시간 정들었던 박범준 대리의 발령소식에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함께한 추억 하나를 더 새기고 보내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평소에도 우리 팀을 보면서 '부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활기찬 팀이 될 수 있게 더욱 힘을 보태겠습니다."

윤강현 팀장의 말이 끝나자 직원들은 일제히 "파이팅!"을 외쳤다. 폐기물부담금팀을 거쳐 간 많은 직원들은 현재 속한 팀에서도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고 한다. 해피바이러스를 가득 안고 떠나는 박범준 대리가 새로 속하게 될 팀에도 행복한 기운을 가득 퍼뜨릴 예정이라고 하니, 한국환경공단의 모든 직원이 다 행복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경남권지역본부 자원순환처 폐기물부담금팀을 소개합니다

폐기물부담금팀은 환경부하가 높은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가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유통 단계에서 기업 스스로 폐기물발생량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처리하도록 유도해 환경적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팀입니다.

1 따끈따끈한 피자와 도넛이 배달되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2 유쾌, 상쾌, 통쾌남녀들의 간식타임.
3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일해서 행복하다는 폐기물부담금팀.

EDITOR _ 김새미나

과일 껍질 활용법
더 이상 버려지려 하기 전에

주부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는 늘 고민거리다. 가족들 건강을 생각하면 과일을 꼭 챙겨 먹여야 하고, 과일의 껍질에 아무리 영양분이 많다고 해도 농약이나 오염 물질이 달라붙어 있을까봐 껍질째 먹기도 망설여진다. 과일 껍질에는 과일 알맹이를 보호하고 외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산화방지제 등의 성분이 있어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과일 껍질로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는 팁, 친환경 살림꾼이라면 꼭 알고 넘어가야할 정보다.

찌든 때 안녕~
감자 껍질

얇게 벗겨낸 감자 껍질, 과연 쓰일 곳이 있을까? 감자 껍질은 더러워진 유리컵이나 그릇을 깨끗이 닦아준다. 잘게 잘라 물과 함께 유리 소재의 용기에 넣고 흔들면 된다. 그래도 더러우면 며칠 동안 담가두면 효과적이다. 스테인리스 소재 싱크대나 화장실 거울, 수도꼭지 등의 물때 청소에도 탁월하다. 그밖에도 잘 지워지지 않는 욕실 타일 사이의 때나 곰팡이를 닦을 때 감자껍질을 세워서 닦으면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

표백 전문,
레몬 껍질

레몬은 껍질째 물에 넣어 마시거나, 차에 넣어 향을 내기도 하지만 알맹이만 요리에 쓰고 껍질은 버려지기도 한다. 레몬껍질의 안쪽으로 치아를 문질러주면 치아 미백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미백은 물론 표백효과도 있어 하얀 옷을 삶을 때 레몬 껍질을 넣고 삶으면 흰 옷을 더욱 하얗게 한다. 그밖에도 레몬 껍질을 물에 넣고 끓이면 주전자나 냄비의 물때를 제거할 수 있고, 집안 공기를 상큼하고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방향제 역할을 해 일석이조다.

향긋한 천연세제,
사과 껍질

요리를 하다 보면 냄비가 눌어붙는 것은 예삿일이다. 이런 냄비에 물과 사과 껍질을 넣어 10분 이상 끓이면 사과에 포함된 산 성분이 그을음을 분해한다. 또한 조리 도구나 그릇의 기름 때는 물론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으로 요리를 할 때 같이 넣고 재우면 비린내를 제거할 수 있다. 사과 껍질은 말려서 방향제로도 사용 가능하다. 잘 마를 수 있게 잘게 썰어 햇빛에 바짝 말린 사과 껍질을 천주머니에 넣어 걸어두면 방향제 역할을 한다.

손쉬운 가죽 손질,
바나나 껍질

바나나는 먹기에 간편해서 바쁜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아침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먹는다. 영양도 풍부하고 포만감을 주는 바나나이지만 음식쓰레기로 버리기엔 부피도 크고 처리도 애매하다. 바나나 껍질 안쪽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천연가죽 소재의 핸드백, 신발, 의류, 또는 가죽소파에 묻은 얼룩을 제거할 수 있다. 얼룩 부분을 바나나 껍질의 안쪽으로 살짝 문질러 준 다음 마른 걸레로 한 번 더 닦아주면 얼룩이 제거되고 광택 효과까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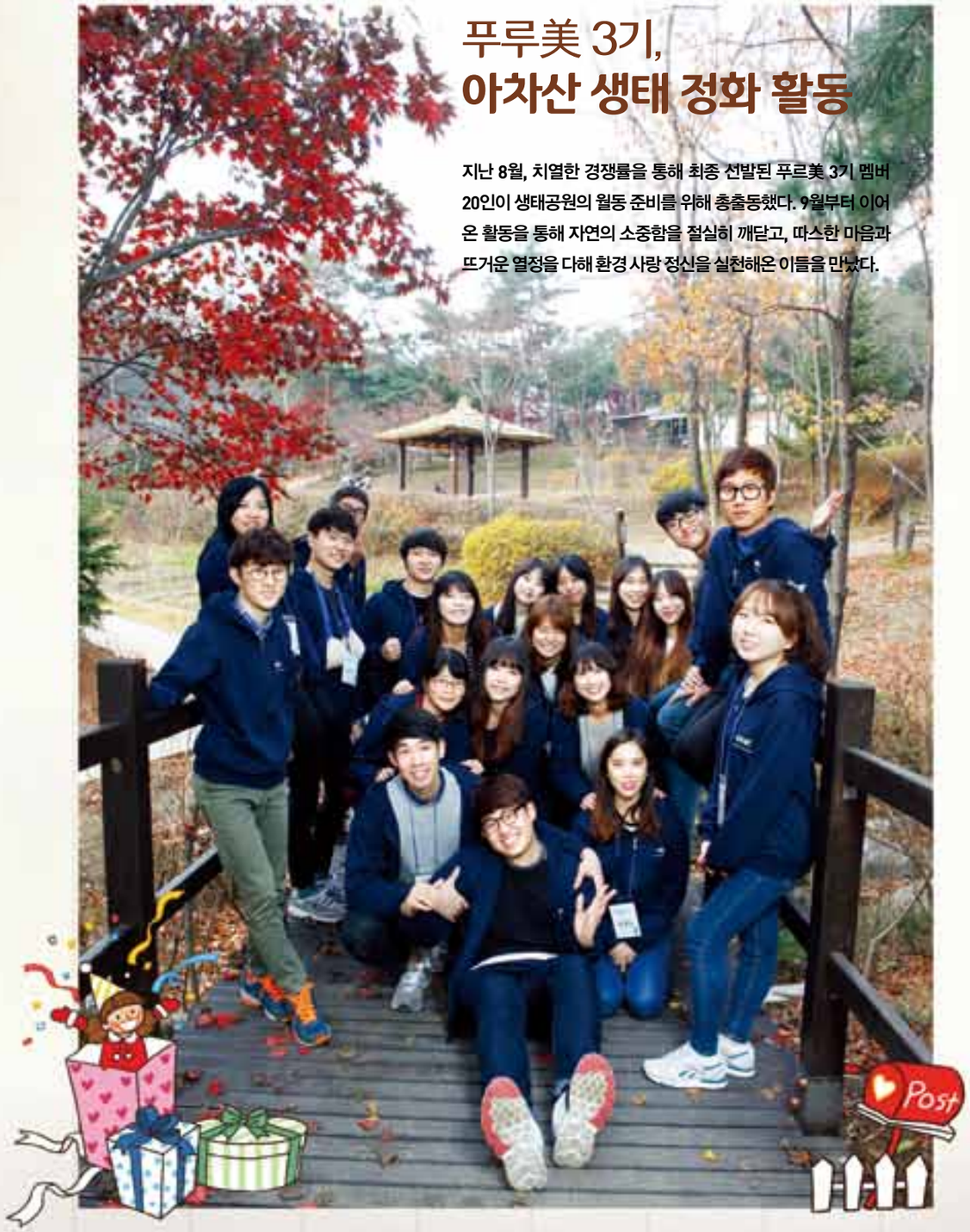
내 꿈은 빨래왕,
귤 껍질

비타민C가 풍부한 귤은 겨울철에 더욱 많이 먹게 되는 과일이다. 귤 껍질은 전자렌지에 베인 냄새를 제거하는 데 좋다. 껍질을 넣고 약 30초간 가동시키면 냄새가 제거된다. 빨래할 때에도 유용하다. 옷에 묻은 잉크나 매직 얼룩은 귤 껍질 안쪽의 부드러운 면으로 문지르면 지워진다. 또 귤 껍질을 물과 함께 끓인 후 그 물에 삶은 빨래를 10분 정도 담갔다가 헹구면 깨끗해진다.

EDITOR _ 김연정
PHOTOGRAPHER _ 이일영

푸루美 3기, 아차산 생태 정화 활동

지난 8월, 치열한 경쟁률을 통해 최종 선발된 푸르美 3기 멤버 20인이 생태공원의 월동 준비를 위해 총출동했다. 9월부터 이어온 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따스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다해 환경 사랑 정신을 실천해온 이들을 만났다.



함께일 때 더욱 빛나는 푸루美 3기

지난 11월 23일, 푸루美 3기 멤버 전원이 아차산 생태공원에 모였다. 서울 뿐 아니라, 울산과 충청남도, 전라북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이들은 비록 늘 함께할 수 없어 '따로 또 같이' 활동하지만, 함께 뭉칠 때 가장 큰 저력을 발휘한다. 오늘 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생태 정화 활동을 하고, 아이들이 사용할 교구를 제작하는 일. 이들의 손에는 먼저 '톱'과 '나무'가 들렸다. 생소하고, 낯선 도구임에 분명했지만, 이들은 당황한 기색 없이 자리에 앉아서 톱질을 하기 시작했다. 한 명이 톱질을 하는 동안, 한 명은 나무를 고정해 잡으며 톱질이 수월할 수 있도록 도왔다. 거칠고 투박한 톱에도 아랑곳 않고, 푸루美 일원들은 연신 웃으며 나무 하나를 잘라낼 때마다 차곡차곡 쌓으며 즐거워하는 표정이었다. '쓱싹쓱싹' 경쾌한 울림이 공원에 퍼져나갔다. 특히 깁스를 한 팔을 싸매고, 동료가 톱질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다리에 힘껏 힘을 주어 나무를 고정하고 있던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정대성 학생의 모습이 단연 눈에 띄었다. "어깨 쇄골이 끊어져서 고정했던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푸루美 활동을 위해서 어제 오전에 퇴원하고, 오늘 아침에 바로 서울로 왔어요. 추워서 어깨가 시려오지만, 오히려 많이 도울 수 없어 미안하네요. 시민 분들이 저희 푸루美 활동 덕분에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된다고 하실 때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더없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진정한 환경 지킴이 멘토를 꿈꾸며!

친구끼리 팀으로 지원해 다정하게 톱질을 하고 있던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선세나 학생과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지영 학생은 푸루美 3기로 활동하며 환경을 지키는 일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예전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막연했다면, 이제는 환경 관련 문구만 보더라도 결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저 내용을 블로그에 꼭 올려서 남들에게도 알려야겠다!'하는 사명감과 책임감도 갖게 됐고요."

푸루美 3기에는 환경에 대한 단순한 관심을 넘어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대다수가 이론으로만 알던 내용을 실제생활에 대입할 수 있어 가치 있는 활동이었다는 의견이었다. 평소 푸루美 1, 2기의 활동을 눈여겨보다 참여하게 됐다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정은주 · 유철희 학생은 "이론으로만 알던 내용을 실제 생활에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공부하는데 더욱 큰 동기 부여가 된다"고 밝혔다. 톱질을 마친 이들은 아차산 생태공원의 이곳저곳을 청소하며 공원 이용객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다. 올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오프라인 모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 재능기부 활동과 환경에 관한 홍보 캠페인을 펼치며 진정한 환경 지킴이로 거듭난 푸루美 3기. 이들의 활동이 향후 선발될 푸루美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DITOR _ 성소영
PHOTOGRAPHER _ 홍승진

우리 함께, 높이 더 높이!

어린 시절, 이층침대의 로망이나 정글짐 정상에 오르겠다는 꿈을 한 번쯤 가져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것도, 두려운 것도 없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력을 거스르고 높이 오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한다. 충청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사업계획팀 김지혜 사우와 충북출장소 자원순환지원팀 고병주 사우는 '높이 오르고자 하는 본능'을 충족시키는 운동인 스포츠 클라이밍체험을 하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해맑고 즐겁게 웃었다.

아리따운 두 소녀, 클라이밍을 만나다

날씨가 제법 추워지기 시작한 초겨울의 어느 날, 앳된 얼굴의 김지혜, 고병주 사우가 실내 클라이밍을 체험하기 위해 모였다. 오늘의 약속 장소는 신사동에 위치한 더자스클라이밍 짐. 두 사우 모두 가녀리고 아담한 체구의 소유자라 다소 역동적인 운동인 클라이밍을 잘 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던 찰나, 김지혜 사우가 먼저 씩씩한 목소리로 체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실 클라이밍은 처음이에요. 활동적이고 운동을 좋아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병주와 함께하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평소 사보를 즐겨본다는 이들은 '만약 사보에 실릴 기회가 생긴다면 꼭 서로와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 두 사우 모두 2012년에 입사한 동기이자 21살 동갑내기 친구로 어린 나이에 시작한 사회생활에 서로 큰 의지가 되기 때문. 김지혜, 고병주 사우는 각각 충청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사업계획팀, 충북출장소 자원순환지원팀에서 사무 ·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비록 근무처는 다르지만 김지혜 사우가 소속된 사업계획팀에서는 충청권지역본부의 전반적인 사업 수행을 총괄하고 있어 업무적으로 교류가 많은 편이다. 퇴근 후에도 종종 만나 고민상담을 하고, 회사 생활에 대한 조언을 얻는 좋은 친구이자 동료다.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옷을 갈아입고 클라이밍 슈즈를 신은 뒤 준비운동을 시작했다. "지혜 발이 220mm 거든요. 신발이 클까봐 걱정이에요"라며 고병주 사우가 김지혜 사우를 바라보자, 이에 화답하듯 "나는 튼튼해서 괜찮은데, 체험하는 동안 병주가 체력적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라며 김지혜 사우가 웃었다.

자기 자신보다 서로를 먼저 챙기고 생각하는 마음이 빛나는 모습이었다.

전신의 힘을 기르는 클라이밍의 매력

"클라이밍은 팔 힘을 기르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몸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운동이라 전신의 근육이 발달됩니다."

오늘 체험의 진행을 담당할 염정훈 강사의 강의가 시작됐다. 클라이밍에 대한 설명을 듣는 두 사우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실내 클라이밍은 암벽등반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벽에 박힌 돌기인 '홀드'를 잡고 위 · 아래 또는 양 옆으로 움직이는 운동이다.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날씨의 제약을 받지 않아 겨울철 운동으로 안성맞춤이다. 알록달록하고 예쁜 모양의 홀드가 눈길을 사로잡는데, 벽이 다양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 생각보다 체력소모가 많다. 덕분에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근육을 발달시켜 몸매가 예뻐진다고. 20대 초반의 여 사우들답게 "예쁜 몸매를 가질 수 있다"는 강사의 말에 서로를 바라보고 전의를 불태웠다. 먼저 고병주 사우가 강사의 도움을 받으며 클라

"운동할 땐 재밌었는데
끝나고 나니 팔에 힘이 빠져서
마우스도 못 잡겠어요.
내일 바쁜 날인데 큰일 났다!"라며
두 사우 모두 업무에 대한
생각부터 했다.

이밍 체험을 시작했다. 첫 번째 순서는 '몸으로 이등변 삼각형 만들기'. 손에 초크를 바른 뒤 클라이밍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세인 한 팔과 양 발로 삼각형을 이루며 벽을 오르는 것. "옆으로 움직이는 건 쉬운데 올라가는 게 조금 어려워요"라며 울상을 지었지만 체험을 마치고 내려오자 "처음인데도 모범적인 자세로 정말 잘했다"고 강사의 칭찬을 받았다. 다음으로 고병주 사우의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던 김지혜 사우의 차례. "발로 몸에 중심을 맞추면 팔에 힘이 덜 들어가니 천천히 한 발씩 오르세요"라는 강사의 말에 따라 차근차근 벽을 오르자 어느새 정상에 도달했다. 높은 벽 위에서 한 손으로 홀드를 잡고 "안녕"을 외치는 김지혜 사우의 모습에 클라이밍 체험장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즐거운 시합으로 분위기 UP!

기본적인 동작을 모두 익힌 뒤 강사의 제안으로 간단한 클라이밍 시합을 하기로 했다. 클라이밍이 규칙 없이 홀드를 잡고 오르내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각 홀드의 밑에는 작은 글씨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번호의 순서를 따라 가장 높이 오르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운동이다. 공식적인 경기에서는 홀드의 번호 순서인 루트를 파악할 40초의 시간을 주고, 15m 높이의 벽을 오르는 것이 규칙. 두 사우는 클라이밍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루트를 파악할 3분의 시간을 주고 4m의 벽을 오르는 것으로 간소화했다.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하고, 김지혜 사우가 먼저 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처음 하는 시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능숙한 실력으로 금세 정상에 도달해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다음은 고병주 사우 차례. 강습을 받으며 힘을 많이 쓴 탓인지 중간 중간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기를 반복했다. 결과는 역시 다람쥐처럼 날렵했던 김지혜 사우의 승. 하지만 승패여부에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고병주 사우도 함께 박수를 받았다. 시합이 끝난 뒤, 평소보다 많은 체력소모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바라보던 김지혜 사우가 말을 시작했다.

"저는 워낙 왈가닥이고 병주는 여성스럽거든요. 이 시합도 병주는 조심스럽고 차분한 성격인 반면 저는 여자치곤 거친 편이라 이긴 것 같아요. 같은 일을 하다보니까 업무적으로도 꼼꼼한 병주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많아요. 클라이밍을 하면서도 성격이 드러나네요."

우리는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

클라이밍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레스토랑으로 이동하는 길, "운동할 땐 재밌었는데 끝나고 나니 팔에 힘이 빠져서 마우스도 못 잡겠어요. 내일 바쁜 날인데 큰일 났다!"라며 두 사우 모두 업무에 대한 생각부터 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해 걱정이 많았는데 선배들의 격려 덕분에 지금까지 잘 적응할 수 있었기에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베테랑이다. 근처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와! 여기 좋다"며 탄성을 터뜨렸다.

"사실 저희 가로수길 처음 와봤거든요. 예쁜 카페나 레스토랑은 많은데 너무 건물 위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는 청주에도 가로수길이 있어요. 넓은 도로 양쪽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쭉 줄지어 서있는 모습이 진짜 아름다워요. 신사동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그 정도는 돼야 '가로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웃음)?"

고병주 사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청주 가로수길 진짜 좋은데!"라고 맞장구치는 김지혜 사우. 역시 자연을 사랑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직원들답다. 힘든 운동 후 찾아온 휴식시간. 연신 "배고파"를 외치던 두 사우는 스파게티와 리조또로 맛있는 점심식사를 마친 뒤, 타이마사지로 하루의 피로를 풀며 오늘 일정을 마무리했다. 닮은 듯 다른 두 사우는 서로를 향해 "회사 동료라기보다는 가장 친한 친구"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말했다. 회사에서는 업무를 공유하고, 퇴근해서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진정한 동료이자 친구인 이들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인생의 가장 값진 보물을 얻은 것 같다.

Tip

더자스클라이밍 짐(The Ja's climbing gym)

국내 최정상급 스포츠클라이머 김자하, 자비, 자인 남매가 운영하는 실내 인공암장. 인공암장은 어둡고 칙칙하다는 기존의 인식과는 다르게 세련된 인테리어로 쾌적한 환경에서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다. 다양한 각도의 벽으로 이뤄진 등반 공간은 물론 샤워실과 탈의실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초보자의 경우, 일일 체험강습을 통해 클라이밍의 기초를 경험해볼 수 있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29-4
문의 02-3445-5014

제7차 세계물포럼 월드 워터챌린지에 도전하세요!

EDITOR _ 성소영
PHOTOGRAPHER _ 홍승진

동물과 아이들의 아름다운 교감

우리에게 동물 친구가 생겼어요!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사람의 본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칸트의 유명한 말처럼,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법을 배운 어린이들은 사람에게도 관대하게 사랑을 베풀 줄 알게 된다. 추운 날씨가 잠시 주춤했던 초겨울의 어느 날, 호남권지역본부 대기관리팀의 전혜영 대리 가족이 동물원으로 출동했다. TV에서만 보았던 동물들과 눈을 맞추고 직접 먹이를 주며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낯선 야생동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친구가 된 시간이었다.

"커다란 동물친구들도 아기처럼 조심스럽게 대하며 친근감을 표시하는 준호와 채원이의 모습에서 사랑이 넘치는 엄마아빠와 자애로운 할머니의 울타리가 얼마나 따뜻한 지를 가늠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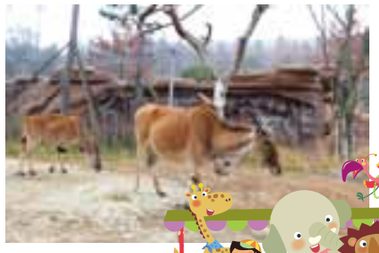
다섯 식구가 함께한 에버랜드 여행

"에버랜드는 처음이에요. TV에서만 봤는데 사람이 정말 많네요."

호남권지역본부 대기관리팀의 전혜영 대리가 도착하자마자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 알록달록 색색의 패딩 점퍼를 갖춰 입은 가족의 모습이 무지개처럼 예쁘다. 입구에서부터 엄마아빠의 손을 피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바쁜 준호(7)는 오늘의 나들이가 설레 잠까지 설쳤다고. 잠이 덜 깬 둘째 채원이(4)를 챙기느라 바쁜 엄마를 대신해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에버랜드 나들이에 나섰다. 이번 여행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이라 전혜영 대리 부부에게는 더욱 뜻 깊다.

"맞벌이하는 저희를 대신해 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셔요. 밖에서 일하느라 집안일도 잘 못하고, 부족한 며느리인데 어머니께서 살뜰하게 보살펴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입사 후 줄곧 경남권지역본부에서 근무하던 전혜영 대리는 여수에서 회사를 다니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던 중, 2011년 호남권지역본부로 발령을 받으며 가족이 모두 여수로 이사를 하게 됐다. 평일에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여수에 머문다는 할머니는 "아이들 때문에 부산에 있는 할아버지와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다"며 웃었다.



더 가까이, 동물 친구를 만나다

전혜영 대리 가족들은 6인승 수륙양용차를 타고 초식동물들을 만나는 스페셜투어를 하기 위해 로스트밸리로 향했다. 라운지에 도착하자 오늘의 체험을 진행해 줄 사육사가 가족들을 맞이했다.

"여기 보이는 수륙양용차를 타고 직접 동물들의 우리에 들어갈 거예요. 초식 동물들은 사납지 않지만 겁이 많아서 만지거나, 소리를 지르면 깜짝 놀라요. 우리 함께 겁쟁이 동물들을 지켜주기로 약속해요!"

준호와 채원이는 눈을 반짝이며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차에 탑승해 사육사와 함께 "출발!"을 외치자 본격적인 스페셜투어가 시작됐다. 굽이굽이 동물원 사육장 깊숙이 들어가자 처음으로 등이 불쑥 솟은 쌍봉낙타의 모습이 보인다. 창문과 천장이 없는 수륙양용차에 낙타들이 가까이 다가와 가족 모두 "우와, 낙타가 바로 코앞에 있다니!"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겁이 없는 준호가 제일 먼저 낙타에게 먹이를 건넸다.

산양, 코끼리, 얼룩말 등 익숙한 동물들과 함께 바바리양, 흰오릭스와 같이 평소에 보기 힘든 다양한 초식동물들까지. 먼발치에서만 바라보던 동물원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눈을 맞추고 먹이를 줄 수 있는 체험에 가족들 모두 흥분한 모습이었다. '수륙양용차'라는 이름답게 차를 타고 동물원 내의 작은 강을 지나자 오늘 체험의 하이라이트, 기린이 등장했다. 5m에 달하는 큰 키의 기린은 가족들이 탄 차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처음 보는 놀라운 광경에 준호와 채원이가 "우와, 키가 진짜 크다!"며 넋을 놓고 기린을 바라보았다. 앞서 오빠가 동물들에게 씩씩하게 먹이를 주는 것을 지켜보던 채원이가 용기를 냈다. 엄마아빠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집게로 풀을 집어 내밀자 기린은 긴 목을 구부린 뒤 보라색 혀로 먹이를 감아 맛있게 먹는다. 그 모습에 준호가 애교스러운 말투로 "기린아 내 것도 먹어줘~"라고 외쳐 가족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겁을 먹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어느새 동물들과 한층 가까워진 모습이었다.

이번에는 동물들이 잠을 자고 생활하는 실내 사육장을 둘러보는 백사이드 체험을 할 차례. 백사자와 기린, 코뿔소의 집을 둘러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었던 동물은 단연 백사자. 사육사가 된 듯 소도구를 이용해 백사자를 트레이닝하고 젓가락에 닭고기를 끼워 사자에 입에 넣어주는 등의 체험을 통해 준호와 채원이는 무섭고 사나운 육식동물과도 친해질 수 있는 법을 배웠다. 예민한 사자의 특성상 사진에 담을 수는 없었지만 오늘의 체험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가족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가족들도 이제 에너지를 보충할 시간. 근처 레스토랑에 들어가 맛있는 돈가스로 점심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유난히 사이가 좋아보이던 전혜영 대리 부부는 동갑내기 캠퍼스 커플이었다. 전 대리는 남편의 한결같고 자상한 모습에, 남편 조민수 씨는 전 대리의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반했다고. 대학교 4학년 때 교제를 시작해 5년 연애 끝에 결혼으로 골인한 부부는 지금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사랑이 가득하다.

"학교 다닐 때는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친구도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과 아이들밖에 모르는 일등 아내이자 엄마가 됐네요." 이에 질세라 전혜영 대리가 "남편은 그 어떤 아빠보다 아이들하고 제일 잘 놀아주는 사람일 거예요"라며 조민수 씨를 추켜세운다. 부부를 바라보던 준호의 할머니는 "예의바르고 교양 있는 모습에 처음 보는 순간부터 혜영이가 참 좋았어요"라며 며느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커다란 동물친구들도 아기처럼 조심스럽게 대하며 친근감을 표시하는 준호와 채원이의 모습에서 사랑이 넘치는 엄마아빠와 자애로운 할머니의 울타리가 얼마나 따뜻한 지를 가늠케 한다. 야생동물 친구들과 만난 오늘의 체험을 통해 준호와 채원이는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하나 더 깨닫게 됐을 것이다.

Tip

에버랜드 로스트밸리 체험프로그램

에버랜드 내에 위치한 초식동물 전용 사파리 로스트밸리. 자유이용권 소지자라면 누구나 40인승 대형 수륙양용차를 타고 초식동물들의 사육장을 투어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장한 지 1주년을 맞은 로스트밸리에서는 가족 방문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6인승 소형 수륙양용차를 타고 동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스페셜투어'를 비롯해 백사이드체험, 생생체험교실 등 동물들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특별체험프로그램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예약하는 것이 좋다.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애버랜드로 199
문의 031-320-5000

1사1촌 자매결연 하반기 봉사활동 실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는 지난 11월 12일 양평군 강상면 신화2리 신당곡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같은 해 지난 5월 20일 자매결연을 맺은 신당곡마을과는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실시되는 자매결연 마을 방문 봉사활동은 앞으로 신당곡마을과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당곡마을을 방문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직원들은 오전에는 두 팀으로 나뉘어 볏짚단 쌓기, 마을 청소를 했으며, 오후에는 세 팀으로 나뉘어 무 수확하기, 볏짚단 쌓기, 마늘 심기 등을 도왔다. 수도권동부지역본부 손양래 본부장은 "농사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올 때마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를 약속했다.

오전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상호 교류와 화합을 다졌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일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덜어주기 위해 직접 점심 도시락을 준비한 세심함도 돋보였다.

신화2리는 232명 101가구의 작은 마을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70세 이상의 고령층이기에 거동이 불편하고 일손이 매우 부족했다. 신화2리 신승진 이장은 "어느 계절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가을걷이 후에도 여러 가지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직접 마을을 찾아 크고 작은 일을 해결해줘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환경시설처 공사관리5팀 맹진영 과장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좋다. 이렇게 농사를 돕고 집에 간 후에는 밥알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커진다"며 농사와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험실 통합 완료 및 우수 안전관리 실험실 선정 보고회 개최

환경분석처에서는 지난 11월 4일 이사장, 양 노조위원장, 기후대기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험실 통합 완료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실험실별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 안전관리 실험실을 선정하고 포상했다.

실험실 통합 작업은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실험실을 환경분석처로 이관토록 함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18개 실험실을 기능별, 매체별로 재분류하여 13개 실험실로 10월 말 통합을 완료했다. 특히, 환경기술관의 1층을 유기물질에 대한 전처리실과 분석실로, 2층을 무기물질에 대한 전처리실과 실험실로 재구성했으며, 기후대기관의 1층 실험실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대기분야 실험실로 특화함으로써 그 동안 팀별 실험실 운영에서 매체별, 기능별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실험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함으로써 실험실 면적을 약 100평 정도 줄여 타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석장비 가동률도 55%에서 70%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월에는 개정된 관련 법률에 따라 시험분석의 정도관리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도관리팀을 신설했으며, 9월말에는 환경부, KOLAS 같이 정도관리 주체별로 별도 제정된 품질문서 264개를 119개로 통합하여 하드웨어적인 실험실 통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통합도 완료했다.

이와 같이 새로이 구축된 시험분석 인프라를 바탕으로 환경분석처에서는 미나마타 협약 가입에 따라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수은관리 등의 신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자마당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자연 가까이 사람 가까이〉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하는 〈자연 가까이 사람 가까이〉는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환경 매거진입니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은 칼럼에 대한 칭찬부터 다소 아쉽고 미흡했던 칼럼에 대한 충고까지,
독자 여러분의 어떤 말씀이든 소중히 경청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을 축하합니다

위승남(부산시 북구 화명3동) **김현태**(경기도 시흥시 장곡로)
전행숙(서울시 성동구 행당2동) **장고운**(전북 여수시 웅천로)
강상철(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서정민**(전남 순천시 서면)
권성현(대구시 동구 율하동로) **김건완**(인천시 연수구 새말로)
오인열(부산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공요셉**(충북 보은군 보은읍)

Quiz

우리나라의 하천과 호소에 대한 수질 측정과 감시 오염사고 방제 등의 업무를 통해 수질오염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① 악취관리센터 ② 수질오염방제센터 ③ 환경사랑홍보관

정답을 독자엽서에 적어 한국환경공단으로 보내주세요. 2월 28일까지 도착한 엽서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sabo@keco.or.kr 또는 엽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

한국환경공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사보배송
2. 독자엽서 당첨 상품 발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환경공단은 사보 배송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이름, 주소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회원탈퇴 및 사보배송 거부 시까지입니다. 정보 주체 개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및 철회 권리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필수정보를 동의하지 않으면 사보배송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사보 배송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제공 철회 및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원활한 사보 배송을 위해 아래와 같이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사고 시의 책임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료 후의 개인정보 파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이름, 주소, 소속, 직위
2. 정보의 이용목적 : 사보 배송 및 상품발송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배송거부 및 회원 탈퇴 시까지
4. 업체 : 하나로애드컴

KOROAD 도로교통공단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0. 6.10~

서인천 우체국
승인 제 116호

보내는 사람 (신규 구독을 원할 경우, 신규 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이름 ☐신규 ☐변경

주소

전화번호

☐☐☐ – ☐☐☐

받는 사람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단지)

한국환경공단 홍보실(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담당자 앞)

4 0 4 – 7 0 8

KECO vol. 19 | WINTER 2014

1. 이번 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사에 대한 소감, 또는 아쉬웠던 점과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2.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 혹은 편집실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Quiz 우리나라의 하천과 호소에 대한 수질 측정과 감시 오염사고 방제 등의 업무를 통해 수질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① 악취관리센터 ② 수질오염방제센터 ③ 환경사랑홍보관

여러분의 의견은 더욱 알찬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를 만드는 데 소중히 반영하겠습니다.
엽서를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